

T_M_004

고도채비본(일도2)

옛날 심뜰에
고도채비엔 혼 사름이
시였는디.
늘쎄기가 천하 일등이랐수다.
고도채빈 사농도 잘 혼연
할루산이 노리 깡녹은
들려강 손으로 심곡
흐였수다.
신축년 난리 때도
고도채비가 들언
성교팰 눌졌수다.
신축년 난리 때
모관 동문을
고도채비가 치는디
성우티서 서양신부가
양총을 들런 팡팡 쏘와가난
고도채빈
일로 피흐곡 절로 피흐곡
흐멍
화싱총으로만 서양신불 쏘완
서양신부 모줄 시번이나
뱃겼수다.
화싱총으로만 쏘완
모줄 뱃겨가난
성교패들이 혼비백산 혼연
돌아나부난
그젠 동문이 헐리고
고도채비가 입성을 흐였수다.
그 땐 나라가 약흐난
나라은 성교펜을 들언
난을 일으킨 건
매딱 우리 백성들 죄엔 혼연
삼으스 혼고 삼읍 선봉을
문 심언 나라일 가난
어전에 국문을 흐는디.

전하가 고도채비?라
“활을 잘 쏜뎅 旱난
얼매나 쏘와지느냔?”
들으난.
고도채빈
“잘은 못씁네다만
물에 비춘 생이 정돈
굴메만 보멍 쏘와지쿠덴”
旱난,
“게멘 훈번 旱여 보렌”
旱연,
활을 내여주난.
나인 시견
“큰 장태에 물질어당 놓렌”
旱연,
“그 우티로 생이 늘건
쏘아보렌”
旱였수다.
그영旱연 旱술 시난
그 우티로 밥주리 훈머리가
늘았수다.
고도체빈 그 굴멜 보멍
밥주릴 쏘완 털어치우난
성상이 크게 감탄을 旱고,
양총 훈즈록을 하사 旱였수다.
고도채빈 그 총을 하사받안
누르렀는디.
그르후제 무실에서도
그 총을 빌지 그리와도
어스풀이라부난 누게도
굿딱 旱질 못 旱였수다.

<제주시 일도이동 신남 59세 정씨>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692.